

## 용서특질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김 지 영<sup>†</sup>

권 석 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성격적 강점과 덕성으로서의 용서는 가해자에 대한 보복욕구를 의지적으로 내려놓고 보다 자애롭고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긍정적 특질로 정의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용서가 인간의 부적응적인 증상들을 감소시키고 방지할 수 있음을 입증해왔다. 그렇다면 과연 용서가 부정적인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을 넘어 인간의 주관적 안녕과 행복에 기여할 것인가? 본 연구는 성격적 강점으로서의 용서가 주관적 안녕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용서특질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그 심리측정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48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용서특질척도를 실시하여 단일요인구조와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관련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타당화하였다. 연구 2에서는 용서특질척도를 사용하여 삶의 만족도, 행복, 자존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용서특질을 많이 지닐수록 주관적 안녕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연구 3에서는 2003명의 전국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용서와 주관적 안녕과의 관계를 재검증하였고, 용서특질과 관련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성격적 변인들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용서특질척도, 성격적 강점, 용서, 주관적 안녕

<sup>†</sup> 교신저자: 김지영,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Tel: 02-880-6431, E-mail: morie02@hanmail.net

누구나 한번쯤은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입거나 배신을 당하고, 부당한 취급을 당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흔히 분노나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이에 자신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를 피하거나 보복하고 싶은 충동에 이끌리기도 한다. 여러 문학작품과 역사가 입증하듯, 보복은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낳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에 대한 분노 감정과 보복 욕구를 의지적으로 내려놓는 선택을 함으로써,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고 복수와 폭력의 악순환을 멈출 수 있으며 나아가 관계갈등과 오랜 반목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이를 가리켜 ‘용서(forgiveness)’라 할 수 있는데, 용서는 본래 종교와 철학에서 다뤄진 주제로서, 심리학에서는 1980년대부터 경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왔다(김광수, 1999, 2007; McCullough, Pargament, & Thoresen, 2000).

용서라는 단어는 일반인에게 매우 익숙한 용어이자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이지만, 그만큼 용서에 관한 일반인의 개념과 연구자들이 정의하는 개념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Hargrave와 Sells(1997)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관계에 대한 사랑과 신뢰 가능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용서라고 밝힌 한편, McCullough, Rachal, Sandage, Worthington, Brown 및 Hight(1998)는 ‘용서란 대인관계 동기에서의 친사회적 변화로서, 가해자에게 보복하거나 그를 회피하려는 동기가 감소하고 자애를 향한 동기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 Enright(2001)는 용서에 관한 다양한

정의를 통합하고 용서의 다면적인 특성을 반영하려는 시도에서, 용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용서란 상처받은 사람이 가해자에 대한 분노나 적대감을 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동정과 자비, 사랑을 베풀고자 노력하는 복합적인 심리과정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행동·인지를 보다 긍정적인 정서·행동·인지로 바꾸는 과정’이다.

용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용서와 신체적·심리적 건강과의 관계 및 용서의 개입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가해자의 사과 여부가 용서를 촉진시켰으며(Darby & Schlenker, 1982), 가해행위의 고의성 및 결과의 지속 여부가 용서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irard & Mullet, 1997). 또한 가해자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관계가 중요할수록, 관계에 대한 만족과 헌신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보복하기보다 용서하려는 결정을 내렸다(Rusbult, Verette, Whitney, Slovik, & Lipkus, 1991). 국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수아, 2008)에서도 가해자가 사과를 할수록, 관계가 친밀할수록, 용서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조망 수용(perspective-taking)과 공감능력 또한 용서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가해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거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쉽게 용서하는 경향을 보였는데(McCullough, Fincham, & Tsang, 2003), 이러한 공감과 조망능력은 성격의 5요인 가운데 우호성(agreeableness)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배정은, 2006; Brown, 2003). 특히 용서는 우호성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공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Walker & Gorsuch, 2002).

한편 신체적 건강의 경우, 용서하지 않는 반응 중 하나인 적대감의 역효과에 중점을 둔 간접적인 증거들이 많다. 한 메타분석 결과(Miller, Smith, Turner, Guijarro, & Hallett, 1996)는 적대감이 심장질환과 조기사망을 유발하는 독립 위험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용서가 신체건강에 위협이 되는 적대감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용서의 효과성이 간접적으로 입증되는 셈이다. 보다 직접적인 증거로는 Witvliet, Ludwig 및 Van der Laan의 연구(2001)가 있다. 이 연구에서 용서하지 않는 상상은 용서하는 상상보다 부정적인 정서와 생리적 스트레스 수치를 더 많이 유발하였으며, 회복기에 이르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반대로 용서한 사람들은 가해자에 대한 면담을 하는 동안 더 낮은 생리적 반응성을 보였으며 신체증상을 거의 보고하지 않았다(Lawler, Younger, Piferi, & Jones, 2000). Berry와 Worthington(2001)의 연구에서는, 용서성향이 상처를 입은 사건을 상상한 이후의 코티졸 수준을 예측해주었다. 즉 용서성향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수준이 더 낮았다.

심리적 건강의 경우, 용서하는 사람들은 분노,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경험 정도가 낮았다(김기범, 임효진, 2006; 오영희, 2007). Mullet, Neto 및 Rivere(2005)가 실시한 메타분석에 의하면, 용서와 분노의 상관은  $-.21 \sim -.66$ , 용서와 불안의 상관은  $-.15 \sim -.55$ , 용서와 우울의 상관은  $-.14 \sim -.49$ 로 나타났다. 다양한 용서처치 및 개입프로그램의 결과들도 용서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 근친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용서프로그램의 결과, 이들의 우울과 불안이 감소되고 자존감이 증가하였으며(Freedman & Enright, 1996), 아내의 유산결정으로 상처입은 남편

들의 분노, 불안, 우울이 감소하였다(Coyle & Enright, 1997). Worthington, Sandage 및 Berry(2000)는 393명의 참여자에게 임상적 개입(6시간 이상으로 정의)과 비임상적 개입(1-2시간으로 정의)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임상적 개입은 용서에서의 큰 변화(effect size=.76)를 산출했으며, 비임상적 개입 역시 상당한 변화(effect size=.24)를 야기하였다. 국내에서도 김광수(2007)가 용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입증한 바 있으며, 집단따돌림 경험 아동을 대상으로 용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김철환, 이영만, 김민정, 2008)에서도 아동의 보복심리 수준이 감소되고 용서수준이 증가했음이 밝혀졌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용서는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결론은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한다. 우선 용서개입과 처치가 용서와 무관한 다른 심리치료보다 더 유익한지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용서 유도 치료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아무런 처치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기 때문이다(Peterson & Seligman, 2004). 또한 용서를 잘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 용서와 건강, 행복의 관계에 대해 알려진 상당수는 부정적인 특성과 역기능의 부재로부터 추론된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특성의 부재는 긍정적인 특성의 존재와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이는 지금껏 용서연구가 심리학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역기능과 부적응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Fincham & Kashdan, 2004).

1998년 긍정심리학을 창시한 Martin Seligman은 심리학의 새로운 방향과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심리학은 인간의 약점과 장애에 대한 학문만이 아니라 인간의 강점과 덕성에 대한 학문이기도 해야 한다. 진정한 치료는 손상된 것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요컨대 심리학은 인간의 정신장애와 부적응을 제거하고 예방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탐구하고 육성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권석만, 2008). 이와 유사하게, 용서는 역기능의 감소나 제거, 예방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최적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도 연구되어야 한다. 긍정심리학의 렌즈를 통해 용서를 본다는 것은 용서에 대한 보다 완전한 이해와 용서촉진 개입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시사해줄 수 있다.

긍정심리학의 맥락에서 용서는 성격적 강점과 덕성으로서 연구되었다. Peterson과 Seligman (2004)은 인간의 긍정적 특질(positive traits)로서 성격적 강점과 덕성에 대한 방대한 자료들을 검토한 끝에, 문화와 시간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6개의 핵심덕목과 24개의 하위강점들을 아우르는 분류체계(Virtues in Action: VIA)를 구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VIA-IS(VIA Inventory of Strengths)를 개발하였다. VIA 분류체계는 지혜(wisdom), 자애(humanity), 용기(courage), 절제(temperance), 정의(justice), 초월(transcendence)의 6개 핵심덕목으로 구성되며 그 하위요소인 24개의 강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절제와 관련된 강점들(용서, 겸손, 신중성, 자기조절)은 지나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긍정적 특질들로서 극단적인 독단에 빠지지 않는 중용적인 강점들을 일컫는다.

절제의 하위덕목으로서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보복 욕구를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보다 자애롭고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성격적 강점으로 정의된다. 덕목으로서 용서는 개인이 지닌 긍정적인 성격특성 또는 특질이라 할 수 있는데, 긍정 특질(positive traits)이란 일시적인 심리상태가 아니라 개인이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긍정적인 행동양식이나 탁월한 성품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격적 강점으로서의 용서는 특정한 가해자나 가해행동에 대한 상황특수적인 용서라기보다는, 대상과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일에 대해서든 관대함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서성향에 가까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용서를 연구한다는 것은 지금껏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용서 연구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용서가 역기능의 감소와 예방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최적기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인간의 행복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긍정심리학에서 행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연구되고 있다. 첫째는 쾌락주의적 입장으로서 행복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유쾌한 상태라는 관점이다. 둘째는 자기실현적 입장으로서 행복은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발현하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전자의 입장에서 행복은 삶의 만족도나 긍정 정서와 같은 긍정적인 주관적 경험으로 다뤄지는 한편, 후자의 입장에서 행복은 인간의 긍정적 특질인 성격적 강점과 덕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행복의 두 가지 입장을 용서와 연결 지어 생각해보면, 행복과 용서의 관계가 복합적임을 알 수 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은 사람은 분노와 적대감, 배신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고 긍정 정서를 회복할 수 있는 손쉬운 길은 아마도 부정 정서를 자극하는 가해자를 계속해서 피하거나 가해자에게 복수함으로써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일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개인의 내적 긴장감과 고통감을 일시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쾌락주의적 입장이 말하는 행복 즉 주관적으로 윤택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실현적 입장에서 볼 때 회피나 보복은 개인과 대인관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삶을 구현하기 어렵게 만들므로, 궁극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화가 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가해자를 멀리 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자애롭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은 분명 어렵고 힘든 결정이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개인은 분노를 분노로 갚지 않을 수 있는 심리적 유연성과 절제, 가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자애와 관용, 나아가 공동체의 안녕과 복지에 기여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실현할 수 있다. 이처럼 긍정 정서에 초점을 맞추는 쾌락주의적 행복은 개인적 성장과 강점을 중시하는 자기실현적 행복과 통합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권석만, 2008).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강점이자 긍정 특질로서의 용서가 과연 긍정적인 심리상태로서의 주관적 안녕에 기여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용서의 결과로서 부적응과 역기능의 감소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서가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입증하는 증거는 부족한 편이다. 용서는 그 정의상 가해자에 대한 분노나 적대감을 동정과 자비, 사랑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성격

적 강점이므로, 용서의 결과 역시 부정 정서와 역기능의 감소뿐만 아니라 긍정 정서와 최적기능의 향상까지 포괄해야 한다. 따라서 성격적 강점으로서의 용서와 주관적 안녕의 관계를 밝히는 일은 용서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져다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긍정 특질이자 강점으로서의 용서를 측정할 수 있는 용서특질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으며, 용서와 주관적 안녕의 관계를 입증하였다. 또한 용서특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성격적 특성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 연구 1

용서는 그 대상과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측정될 수 있다. 먼저 용서를 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인지 자기 자신인지 또는 상황인지에 따라 타인용서, 자기용서, 상황용서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용서는 특정한 가해자나 가해행동에 대한 상황특수적인 용서와 특정 가해자나 상황과 크게 관계없는 일반적인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용서의 측정은 타인에 대한 용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정 가해자에 대한 용서와는 구분되는 성격특성으로서의 용서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성격특성으로서의 용서는 긍정심리학의 세 기둥으로 불리는 긍정 상태(positive state), 긍정 특질(positive traits), 긍정 기관(positive institutions) 중에서 긍정 특질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긍정심리학자들은 개인의 긍정적인 특질들을 성격적 강점으로서 연구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긍정 특질이자 성격적 강점으로서의 용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국내 용서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척도에는 Subkoviak 등(1995)의 Enright 용서척도(Enright Forgiveness Inventory: EFI)와 McCullough 등(1998)의 가해행동 대인관계 동기척도(Transgression-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s Inventory: TRIM)가 있는데, 이 두 척도는 모두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특정 가해자’에 대한 용서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 용서특질이나 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평가도구는 부족한 편이다. 특히 긍정 특질이자 강점으로서 용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와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연구 1의 목적은 긍정 특질이자 성격적 강점으로서의 용서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그 심리측정적 속성을 확인하며, 관련된 다른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타당화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용서특질척도를 대학생 집단에 실시하여 요인구조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용서특질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가해자에 대한 보복 및 회피동기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했다. 아울러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언급되어온 용서가 우울, 불안 및 분노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서울 소재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총 482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

며, 질문지는 연구자의 설명과 함께 수업 시간에 실시되었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21.35세(표준편차=2.30)였으며, 이 가운데 남자는 320명, 여자는 162명이었다. 용서특질척도 외의 다른 질문지들은 위 482명 중 227명(남 160명, 여 67명)의 참여자들에게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21.70세(표준편차=2.39)였다.

### 측정도구

#### 용서특질척도(Forgiveness Trait Scale: FTS)

이 척도는 본 연구를 위해 저자들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정과 보복 욕구를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보다 자애롭고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덕성’으로서의 용서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성격적 강점으로서의 용서는 특정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과는 구분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용서성향에 가까운 개념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인간의 긍정적인 성품이나 특질에 해당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상황특수적인 용서와는 구별되는 성격적 강점으로서의 용서를 강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용서특질척도라 명명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는 각 문장에 대해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Likert 4점 척도(전혀 아니다=0, 약간 그렇다=1, 상당히 그렇다=2, 매우 그렇다=3)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 가해행동 대인관계 동기척도(Transgression 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 Inventory: TRIM)

McCullough 등(1998)이 개발한 용서측정척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조수아(2008)가 변안한 것

을 사용하였다. TRIM은 특정 가해자에 대한 보복동기를 측정하는 5문항과 회피동기를 측정하는 7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총점이 낮을수록 가해자에 대한 보복 및 회피 동기가 낮으므로 더 많이 용서할 것이라고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용서특질척도와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타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TRIM의 총점(보복동기와 회피동기의 합)만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6이었다.

####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CES-D는 Radloff(1977)가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개발한 통합적 한국어판 CE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과 관련된 행동, 신체, 인지 증상에 대한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72였다.

#### 한국판 Beck 불안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

Beck, Epstein, Brown과 Steer(1988)에 의해 개발된 불안증상을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질문지로서 본 연구에서는 Kwon(1992)이 번안한 한국판 Beck 불안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7이었다.

####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 STAXI-K)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의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를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와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AXI-K에서 상태분노를 측정하는 10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4점 척도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4였다.

#### 절차

용서특질척도의 개발 절차는 다음의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1단계는 용서특질에 대한 정의에 근거하여 예비문항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용서에 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이자 용서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정의(Enright, 2001; McCullough et al., 1998; Hebl & Enright, 1993)에 근거하되, 특정 가해자나 가해행동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성향 또는 긍정 특질로서의 용서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가정한 용서특질이란 ‘상황에 상관없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보복 욕구를 버리고 관대하게 대하고자 노력하는 성향 또는 특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용서관련 문헌 및 선행질문지를 참조하여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려는 용서특질척도는 ‘타인’에 대한 용서성향에 초점을 두고 있고, Peterson과 Seligman(2004)의 분류체계-6개의 핵심덕목과 24개의 하위강점-내에 있는 하나의 강점으로서 다른 강점들과의 비교가 용이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문항수가 많지 않고 단순한 요인구조를 지닐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국내 용서 연구에서 특정

가해자에 대한 용서를 측정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EFI-K의 타당화 연구(박종효, 2006)에서 단일차원의 한 요인모형(60문항)이 적절한 것으로 해석된 바, 용서특질척도 역시 단순한 요인구조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이 용서특질에 대한 정의와 고려사항에 입각하여 17개의 예비문항들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후 예비문항의 내용이 연구자가 가정한 정의에 적절한지를 6명의 임상심리전문가들이 함께 검토하였으며, 내용의 전형성에 근거하여 중복되는 문항은 배제하고 문장 표현을 가다듬는 과정을 거쳐 13개의 예비문항이 구성되었다.

2단계는 문항선별 단계로, 1단계에서 구성된 13개의 Likert형(4점 척도) 예비문항 질문지를 연구 1의 참여자들에게 실시하여 13개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등 문항별 분포양상을 살펴본 후, 평균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문항, 극단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분포하는 문항 및 문항-총점 상관이 .30 이하인 문항 3개를 제외시켰다.

3단계는 요인분석과 신뢰도 및 타당도 확인 단계로, 먼저 연구 1의 표본을 사용하여 총 10 문항의 용서특질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내적신뢰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밝혀진 1요인 구조모형을 확증하기 위해 연구 2의 표본에게 실시한 결과, 용서특질척도의 단일요인구조가 적합하다는 것이 교차 타당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용서특질척도와 이론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을 것으로 가정된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본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SPSS for Windows(version 15.0)를 사용하여 기술 통계치를 구하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및 상관분석을 하였다. 또한 확증적 요인분석을 위해 AMOS 5.0을 사용하였다.

## 결 과

### 탐색적 요인분석

용서특질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총 10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KMO(Kaiser-Meyer-Olkin) 적합성 지수는 .89로 문항 간 상관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며(Kaiser, 1974), Barlett 검증 결과는  $\chi^2(45, N=482)=1650.193, p<.001$ 로 요인분석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적절한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방식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한 결과 고유치(eigen value)가 1이상인 요인이 1개 추출되었으며(요인1의 설명변량=44.97%, 요인2의 설명변량=9.70%), Scree Plot을 이용하여 고유치의 감소 정도를 고려했을 때에도 1요인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요인 수를 1개로 지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 확증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2의 표본(N=480)에 대해서 확증적 요인분석 모형을 만들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1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35)=149.866, TLI=.906, CFI=.940, RMSEA=.073$ 으로 나타났다. 홍세희(2000)에 의하면, TLI와 CFI가 .90 이상이거나



표 1. 용서특질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내용	요인부하량
7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려고 애쓴다	.771
8	양심을 품는 것보다는 용서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755
6	비록 어렵지만, 남을 용서하는 것은 값진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713
10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을 좋아한다	.682
3	비록 적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고통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622
2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수를 꾀하지 않는다	.617
4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최선이다	.610
5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493
1	누가 나에게 불쾌한 일을 하더라도 쉽게 잊어버리는 편이다	.468
9	주변 사람들은 내가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429

RMSEA가 .05 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델로 간주되고 RMSEA가 .08 보다 작으면 적절한 모델로 해석된다. 따라서 용서특질척도의 단일요인구조가 적합한 모델임이 입증되었다.

#### 신뢰도

용서특질척도의 신뢰도 확인을 위해 내적합치도인 Cronbach  $\alpha$ 와 문항-총점 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전체 10문항의 내적합치도는 .86으로 나타났으며,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는 .58~.77의 범위에 있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1 참여자들 중 98명에 대해서 4주 간격으로 용서강점척도를 재 실시하였다. 그 결과 4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 $r$ )는 .78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용서라는 성격적 강점이 시간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준거관련타당도

용서특질척도와 이론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을 것으로 가정된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본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타당도 연구에 사용된 각 질문지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용서특질척도는 보복 및 회피동기(TRIM)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 $r=-.42, p<.01$ )을 보였으며, 우울( $r=-.19, p<.01$ ), 불안( $r=-.21, p<.05$ ), 분노( $r=-.32, p<.01$ )와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성격적 강점으로서의 용서가 뛰어난 사람은 가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그를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낮았으며, 우울, 불안, 분노의 부적응 정서증상에 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용서 성품이 부족한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보복 및 회피 동기와 부적응 정서증상을 많이 겪는 것으로 보이며, 정서 중에서는 특히 분노감과 적대감의 상태를 가장 많이 경험

표 2. 질문지의 범위,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점수 범위	평균	표준 편차	용서	보복·회피 동기	우울	불안
용서	0~30	16.07	4.59				
보복·회피동기	12~60	34.73	7.50	-.42**			
우울	0~60	15.99	5.97	-.19**	.20**		
불안	0~63	9.18	7.06	-.21**	.27**	.62**	
분노	10~40	11.88	2.87	-.32**	.33**	.40**	.51**

\*\* $p < .01$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연구 2

연구 2에서는 용서특질이 주관적 안녕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서울 소재 대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연구 1에서 개발·타당화된 용서특질척도를 사용하여 삶의 만족도, 행복, 자존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용서수준에 따른 주관적 안녕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행복은 주관적 현상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인 보고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입증하는 실증적 연구결과(Diener, 1994; Sandvik, Diener, & Seidlitz, 1993)에 따르면, 행복 정도에 대한 자기보고는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Compton, 2005). 행복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또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권석만, 2008). 본 연

구에서는 주관적 안녕의 측정을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삶의 만족도 척도(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관적 안녕의 인지적 요소를 주로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주관적 안녕의 인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 미래 시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안녕감을 측정할 수 있는 행복척도(권석만, 미발표)를 함께 사용하였다. 또한 주관적 안녕의 매우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알려져 있는 자존감(Campbell, 1981)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 자존감 척도(Rosenberg, 1965)를 사용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서울 소재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총 48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질문지는 연구자의 설명과 함께 수업 시간에 실시되었다. 이 가운데 남자는 326명, 여자는 153명(결측치 1명)이었고,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2.15세(표준편차=2.51)였다.

#### 측정도구

##### 용서특질척도

연구 1과 동일한 것으로, 연구 2에서 내적합치도는 .85로 나타났다.

#####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인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척도로서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하였다. 총 5문항으로서 7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명환과 차경호(1998)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2였다.

##### 행복척도(Happiness Scale: HS)

이 척도는 주관적인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권석만(미발표)이 제작한 것으로, 주관적 안녕의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을 모두 고려하여 구성되었다(예: 내가 살아온 과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 현재의 내 모습에 만족한다, 나의 미래는 밝은 편이다). 총 1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상(전혀 아니다=1, 매우 그렇다=5)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8로 나타났다.

##### Rosenberg 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 RSES)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것으로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는 10문항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7이었다.

## 결 과

연구 2에 사용된 각 질문지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용서특질은 삶의 만족도( $r=.48, p<.01$ )와 행복( $r=.46, p<.01$ ), 자존감( $r=.30, p<.01$ )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용서라는 긍정적 특질을 많이 지닐수록 삶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해하며 자존감도 높은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주관적 안녕을 더 많이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상

표 3. 질문지의 범위,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점수 범위	평균	표준편차	용서	삶의 만족도	행복
용서	0~30	17.13	5.74			
삶의 만족도	5~35	24.11	5.52	.48**		
행복	10~50	38.76	6.09	.46**	.79**	
자존감	10~50	39.27	6.12	.30**	.63**	.73**

\*\* $p<.01$

관분석 결과를 재확인하고 용서특질의 수준에 따른 주관적 안녕의 차이를 뚜렷이 밝히기 위해, 용서특질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였다. 총점을 기준으로 하여 점수가 상위 25%에 해당하는 집단을 용서 상 집단, 하위 25%에 속하는 집단을 용서 하 집단으로 정하였다. 용서 상 집단(N=125)의 용서특질척도 평균(표준편차)은 24.14(2.64)였으며, 용서 하 집단(N=144)의 용서특질척도 평균(표준편차)은 10.36(3.19)이었다. 두 집단의 용서특질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38.688$ ,  $p<.001$ . 변량분석 결과, 용서 상 집단과 용서 하 집단 간의 삶의 만족도 차이,  $F(1, 267)=98.583$ ,  $p<.001$ , 행복 차이,  $F(1, 267)=91.211$ ,  $p<.001$ , 자존감 차이,  $F(1, 267)=37.051$ ,  $p<.001$ ,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성격적 강점으로서의 용서가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주관적 안녕이 더 높은 것으로 재확인되었다.

### 연구 3

연구 3에서는 연구 2에서 밝혀진 용서와 주관적 안녕의 관계를 전국 대학생 표집을 대상으로 확증하고, 더불어 용서특질과 관련된 것이라고 예상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성별, 나이, 출생순위, 학년, 종교, 지속된 이성교제 기간, 동아리 활동)과 성격적 요인들(외향성, 감성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용서특질은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어린아이일수록 용서할 의도가 낮았으며 나이가 많은 성인일수록 용서하려는 관대함을 보였다는 연구들이 있다(Enright, Santos, & Al-Mabuk, 1989; Girard & Mullet, 1997). 물론

연령에 따른 용서의 차이가 단순한 연령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성장경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출생순위는 개인의 성격과 대인관계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석만, 2006). Sulloway(1996)는 성격을 “형제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가족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기 위해 노력하며 아동기의 호된 시련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들의 저장목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출생순위에 따라 용서특질의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Pargament와 Rye (1998)는 종교가 여러 방식으로 용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일찍이 용서는 종교에서 장려되어온 실천 덕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종교의 유무나 종교의 유형에 따라서 용서특질에서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용서는 대인관계나 특정한 활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연구참여자인 대학생들이 대인사건을 주로 경험하게 되는 이성관계의 지속기간과 동아리활동을 변인으로 선택하였다.

한편 McCullough 등(1998)은 다양한 성격변인들이 친-용서적인(pro-forgiveness) 관계양식, 인지, 정서를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용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성격의 5요인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높은 외향성이 더 높은 용서수준과 관련되었으며, 우호성 또한 용서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Berry et al., 2001). 특히 용서는 우호성의 하위차원 가운데 정서적 공감과 크게 관련되었다(Walker & Gorsuch, 2002). 이로 미루어볼 때, 용서특질은 개인의 성격요인 가운데 외향적인 특성이나 정서적인 특성과 관련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 방 법

### 연구대상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및 전라도에 위치한 총 10개 대학의 대학생 2003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 중 무성의 응답과 임의 응답 자료를 제외한 195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체 참여자 가운데 남자는 863명, 여자는 1094명이었으며,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21.07세(표준편차=2.45)였다.

### 측정도구

#### 용서특질척도

연구 1, 2와 동일한 것으로, 연구 3에서 내적합치도는 .84로 나타났다.

#### 행복척도(Happiness Scale: HS)

연구 2와 동일한 것으로, 연구 3에서 내적합치도는 .87로 나타났다.

#### 성격검사

김상균과 권석만(2002)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로 외향형, 내향형, 감성형, 지성형, 추상형, 구체형, 안전지향형, 변화지향형의 8개 성격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특성별로 10문항씩 총 8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0점(전혀 아니다)에서 3점(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내적합치도는 성격별로 .77~.91이었으며, 요인분석 결과 외향성, 지성성, 감성성, 안전지향성/구체성의 4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용서특질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향성과 감성

성 요인을 각 10문항씩 총 20문항을 사용하였다. 김상균과 권석만(2002)에 따르면, 외향형은 외부 지향적이며 넓은 대인관계를 추구하고 사교적이며 활동적인 특성을 지니는 동시에 대인기술을 잘 갖추고 있는 성격특성으로 정의된다. 감성형은 감성적으로 섬세하고 예민하며 문제 상황에 대해 정서적 반응이 우세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정서적 느낌을 중요시하는 유형으로 설명된다. 본 연구에서 외향성과 감성성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89, .82로 나타났다.

#### 인구사회학적 변인

출생순위는 외동, 장남/장녀, 중간, 막내의 4개 집단, 종교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기타의 4개 집단, 지속된 이성교제 기간은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년 이상, 2년 이상의 4개 집단, 주로 활동 중인 동아리 유형은 취미생활, 봉사활동, 종교활동, 사회참여, 학업/취업, 기타의 6개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결 과

참여자들의 지역별 분포를 먼저 살펴보면, 서울 628명(31.4%), 경기도 152명(7.6%), 강원도 190명(9.5%), 충북 159명(7.9%), 충남 166명(8.3%), 경북 309(15.4%), 경남 271명(13.5%), 전남 128명(6.4%)으로 구성되었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722명(36.3%), 2학년 490명(24.6%), 3학년 403명(20.3%), 4학년 313명(15.7%), 그 이상에 속하는 인원이 29명(1.5%)이었다. 출생순위는 외동 228명(11.5%), 장남/장녀가 857명(43.1%), 중간이 173명(8.7%), 막내가 664명

(33.4%)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없음’에 응답한 인원이 1069명(53.7%)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 235명(11.8%), 천주교 225명(11.3%), 기독교 419명(21.1%), 기타 종교에 11명(0.6%)이 응답하였다. 이성교제의 경우 ‘없음’ 또는 무응답 인원이 1260명(63.3%), 6개월 미만 203명(10.2%),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94명(9.7%), 1년 이상이 181명(9.1%), 2년 이상이 152명(7.6%)이었다. 동아리/동호회의 경우 ‘없음’에 응답한 인원이 753명(37.8%), 취미생활이 686명(34.5%), 봉사활동이 139명(7.0%), 종교활동이 120명 (6.0%), 사회봉사가 45명(2.3%), 학업/취업이 115명(5.8%), 기타가 63명(3.2%)이었다.

먼저 성차 요인에 따라 용서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용서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3.91, p<.001$ . 또한 용서는 학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F(3, 1917)=6.937, p<.001$ , 사후분석을 위해 scheffé 검증을 시행한 결과 2, 3, 4학년이 1학년보다 높은 용서점수를 보였다.

종교의 유무에 따른 용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용서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5.032, p<.001$ . 또한 기타 종교( $N=11$ )를 제외한 종교

유형별 용서점수를 비교한 결과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F(2, 872)=5.157, p<.01$ , scheffé 검증결과 천주교와 기독교가 불교보다 더 높은 용서점수를 보였다.

동아리 활동의 유무에 따른 용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동아리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용서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6.668, p<.001$ . 하지만 동아리 유형별 용서점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F(5, 1156)=1.748, p=.121$ .

출생순위는 집단 간 용서특질의 차이가 없었으며,  $F(3, 1911)=.868, p=.457$ , 연애유무에 따라서도 용서에 차이가 없었다,  $t=.188, p=.851$ . 연애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지속기간에 따른 용서점수의 차이는 없었다,  $F(3, 724)=.530, p=.662$ .

다음으로 연구 3에 사용된 질문지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용서와 행복은 연구 2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35, p<.01$ . 이에 용서의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안녕하다는 점이 전국 대학생 표집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용서특질과 관련될 수 있는 성격변인으로 제안된 외향성과 감성성도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r=.17, p<.01, r=.17, p<.01$ . 추가적으로

표 4. 질문지의 범위,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점수 범위	평균	표준편차	용서	행복	외향성
용서	0~30	14.96	5.59			
행복	10~50	35.20	5.96	.35**		
외향성	0~30	18.21	6.21	.17**	.35**	
감성성	0~30	16.72	5.33	.17**	.03	.14**

\*\* $p<.01$

상관분석 결과를 재확인하고 외향성과 감성성의 수준에 따른 용서의 차이를 뚜렷이 밝히고자, 각각의 성격특성을 총점을 기준으로 하여 점수가 상위 25%에 해당하는 집단을 상 집단으로, 하위 25%에 속하는 집단을 하 집단으로 정하였다. 외향성 하 집단은 대인관계에서 사교적이지 않은 동시에 보다 내향적인 사람들로 여겨지며, 감성성 하 집단은 감정이 풍부하지 않고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외향성 상 집단(N=855)의 평균(표준편차)은 15.89(5.52)이었고, 외향성 하 집단(N=447)의 용서특질척도 평균(표준편차)은 13.70(5.89)이었다. 변량분석 결과, 외향성 상 집단과 하 집단은 용서특질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 1300)=43.981, p<.001$ . 또한 감성성 상 집단(N=561)의 평균(표준편차)은 15.85(5.99)이었고, 감성성 하 집단(N=553)의 용서특질척도 평균(표준편차)은 13.52(5.47)이었다. 변량분석 결과, 감성성 상 집단과 하 집단은 용서특질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 1112)=45.872, p<.001$ . 요컨대 내향적인 사람보다는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감정에 둔감한 사람보다는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용서성향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긍정 특질이 강점으로써의 용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용서특질척도를 사용하여 용서와 주관적 안녕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용서 연구는 주로 분노와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및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용서의 결과로서 부정적인 상태의 감소를 확인함으로써 용서의 효과를 입증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Fincham과 Kashdan(2004)에 따르면, 용서는 부정적인 특성과 역기능의 감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긍정적인 특성과 최적기능의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격적 강점으로서의 용서가 긍정적인 심리상태로서의 주관적 안녕에 기여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용서특질척도(FTS)를 개발하여 그 요인구조와 신뢰도를 확인하고 관련된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타당화하였다. 용서특질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요인구조가 시사되었으며, 확증적 요인분석에서 1요인 구조가 교차 타당화되었다. 용서특질척도는 적절한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지닌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또한 용서특질은 가해자에 대한 보복 및 회피동기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 용서성향이 뛰어난 사람은 가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그를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낮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용서를 실제로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연구 1에서 용서특질은 우울, 불안, 분노와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 중 분노와의 부적상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서를 잘 하는 사람들이 분노, 걱정, 우울, 적개심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 감정들의 경험정도가 낮다는 것을 입증한 많은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기범, 임효진, 2006; Berry et al., 2001). 특히 용서와 분노의 부적상관은 신체적·심리적 건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45개의 연구들을 메타분석했을 때 적대감이 심장질환과 조기사망을 유발시키는 독립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는 결과(Miller,

Smith, Turner, Guijarro, & Hallett, 1996)에 비추어 보자면, 용서는 분노의 감소는 물론, 분노가 초래하는 신체적인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더욱이 분노는 대인관계에서 파괴적인 역할을 하는 강력한 부정적 감정의 하나로서, 대인관계 손상(Hazaleus & Deffenbacher, 1986)이나 가정 및 직장에서의 관계 단절(Pan, Neidig, & O'Leary, 1994) 등을 일으킨다. 또한 분노는 공격성을 유발시키는 주된 요소(Deffenbacher, Demm, & Brandon, 1986)로서 공격과 복수의 행동을 준비시키는 경향이 있어, 분노의 감정을 느끼면 흔히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이 뒤따른다. 만일 분노를 느끼고 상대방에게 보복하게 된다면, 상대방 역시 적대감을 느끼고 다시 보복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듯 분노와 보복의 치명적인 악순환이 용서에 의해 차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서는 분노의 파괴적인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연구 2에서 용서특질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 행복 및 자존감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용서 상 집단이 용서 하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삶의 만족과 행복, 자존감을 보고하였다. 용서특질과 주관적 안녕과의 관계는 전국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 3에서도 반복 검증되었다. 따라서 용서의 강점을 많이 보일수록 긍정적 심리상태로서의 주관적 안녕을 더 많이 경험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성격적 강점으로서의 용서와 주관적 안녕과의 관계는 Peterson과 Seligman (2005)의 연구와도 일관된다. 그들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학구열, 창의성, 개방성과 같은 '지성적'이고 '자기초점적'인 강점들보다 감사, 사랑, 용서와 같은 '감성적'이고 '타인초점적'인 강점들과 더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종단적 연구에서도 감성적이고 타인초점적인 강점들이 미래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용서와 같이 타인을 배려하며 지향하는 강점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연구 3에서는 용서와 관련된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성별, 나이, 출생순위, 학년, 종교, 지속된 이성교제 기간, 동아리 활동)과 성격적 요인들(외향성, 감성성)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용서특질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렇지만 여러 실증적 연구들은 용서에 남녀의 성차가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본 연구의 1과 2에서도 성차에 따른 용서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표본에 따라 비일관된 결과가 나타났고 기존 연구들에서도 성차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성별에 따라 용서에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보인다.

연령은 용서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학년에 따라서도 용서특질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2학년 이상이 1학년보다 용서특질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용서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Enright, Santos, & Al-Mabuk, 1989; Girard & Mullet, 1997).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단순한 연령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성장경험에 의해 나타나는 것인지는 구별하기 어렵다. 실제로 1학년 집단과 2학년 이상 집단 간의 연령차이가 아동과 성인의 나이차이만큼 크지 않고, 연령과 용서와의 상관도 작기 때문에,  $r=.096, p<.01$ , 단순한 연령변화보다는 경험에



따른 차이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즉 대학적응기에 여러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신입생보다는 다양한 대인관계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유연성과 관대함이 쌓인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용서성향을 더 많이 나타낼 것이라 추측할 수 있겠다.

또한 용서특질은 종교유무 및 종교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더 높은 용서점수를 보였으며, 종교유형에서는 천주교와 기독교 집단이 불교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용서성향을 보고하였다. 물론 불교에서도 관용과 측은지심의 덕목이 용서의 개념에 가깝기는 하지만, 용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다른 일신교에 비해 비교적 부족한 편이다. 주요 일신교인 기독교와 천주교는 용서의 덕목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바, 용서의 실천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점에서 적극 권장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아마도 용서 덕목을 직접적으로 격려하는 천주교와 기독교 집단에서는 용서라는 강점을 확인하고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종교나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용서점수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성격적 변인의 경우, 외부 지향적이고 대인관계를 추구하며 대인기술을 잘 갖추고 있는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또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적 느낌을 중요시하는 감성적인 사람일수록 용서의 성품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격의 5요인 가운데 외향성과 우호성이 용서와 높은 상관을 보이며, 특히 우호성 중에서 정서적 공감과 크게 관련된다는 견해들과 일관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연구 3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용서 덕목이

외향성만큼이나 행복과의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는 점이다, 각각  $r=.35, p<.01, r=.35, p<.01$ . 외향성은 주관적 안녕을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성격요인으로 알려져 있다(Diener & Lucas, 1999). 많은 연구에서 외향성과 행복도의 높은 상관이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으며, 더욱이 외향성은 최초로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이후 30년까지의 행복 수준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sta & McCrae, 1986). 요즘처럼 사교성이 각광받고 개인의 행복이 최대 관심사로 주목받는 시대에, 자신의 분노감과 보복욕구를 절제하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용서라는 덕목이 외향성만큼이나 개인의 주관적 안녕에 기여한다는 결과는 용서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긍정심리학의 맥락에서 인간의 긍정특질과 덕성의 하나로 제안되어 온 용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용서특질척도를 사용하여 삶의 만족도와 행복, 자존감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용서가 분노나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감소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주관적 안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즉 용서가 부적응 증상의 경감과 예방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최적 기능의 향상측면에서도 효과적임이 밝혀졌다. 이로써 용서에 대한 관점이 보다 완전해지고 폭넓어질 수 있음은 물론, 개인의 성장과 강점을 중시하는 자기실현적 행복(용서)이 긍정 정서에 초점을 맞추는 쾌락주의적 행복(주관적 안녕)과 통합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용서가 용서를 받은 상대방에게 관용과 자애를 베푸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용서를

하는 자신에게도 삶의 만족과 행복을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관점은 용서중심의 치료적 개입과 용서덕목을 함양하는 심리교육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용서를 함양하려는 노력이 단지 부적응과 역기능의 제거나 예방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행복과 자기실현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은 용서의 치료적 개입과 교육의 폭을 보다 넓힐 수 있다. 즉 임상적 수준의 고통을 겪는 환자집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 배신을 당하거나 부당한 취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용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함양하도록 안내하고 교육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인의 경우 환자집단과 달리 임상적 고통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증진시키는데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강점으로서의 용서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긍정적 결과를 설명하는 일은 보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용서를 학습하고 연습하도록 이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용서라는 강점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선회성(social desirability)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용서특질 척도는 인간의 덕성을 평가하는 자기보고형 검사이므로 사회적 선회성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피해자로서 따라야 할 행동규범 때문에 용서를 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으므로 (Takaku, Weiner, & Ohbuchi, 2001), 용서에 대한 자기보고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려는 경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용서는 용감성이나 리더십 등의 덕목들과 유사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평소에 발휘되기보

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로 발현된다는 점에서, 용서와 관련된 상황에 접근하거나 이를 회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평정하게 했을 때 자칫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강점 연구자들은 VIA Structured Interview나 VIA-RTO(VIA Rising to the Occasion Inventory)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면접자가 응답자에게 특정한 강점이 개입될 수 있는 상황(예: 친구에게 배신당한 상황)을 제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묻고, 그러한 상황에서 응답자가 어떤 강점을 자주 나타낸다고 보고하면, 면접자는 추가질문을 통해서 그러한 강점을 어떻게 명명할 수 있는지, 그 강점이 응답자의 특성을 얼마나 잘 대변하는지, 이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들이 얼마나 동의할 것인지 등을 질문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질문지 형식을 사용하여 응답자에게 특정한 강점의 반대 경험에 대해서 묻는다. 예컨대, 용서와 관련된 강점을 평가하기 위해서 분노를 느낀 경험에 대해서 묻고, 이러한 분노 상황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며 그러한 상황에서 보통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기술하게 한다. 그런 연후에, 그 상황에서 보인 행동들에 비추어볼 때, 용서가 자신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방법이다. 이처럼 구조화된 면접이나 구체적인 상황질문 등을 활용하여 응답자의 구체적인 특성들을 평가함으로써, 용서를 비롯한 성격적 강점에 대한 자기보고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용서의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실제로 용서를 더 많이 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통제된 시나리오나 실험연구 또는 용서를 촉진하는 개입을 사용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용서특질척도

는 Peterson과 Seligman(2004)이 구축한 24개의 성격적 강점체계 중 하나의 덕목으로 자리해 있으며, 24개의 강점은 개인의 대표강점을 확인하고 이를 계발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용서특질척도를 나머지 강점척도들과 함께 실시하여 개인의 대표 강점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를 함양하는 데 활용한다면 더욱 유용할 것이다. 또한 추후 다른 강점들과의 비교를 통해 용서와 밀접히 관련되거나 반대로 상충되는 강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분석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Seligman(2002)에 따르면, 강점 발견은 긍정 정서의 증가와 몰입(flow), 행복으로 가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즉 강점의 확인이 주관적 안녕을 고양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용서와 같은 성격적 강점과 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들의 개발이 매우 의미 있고 시급한 일이라 생각되며, 본 연구가 갖는 의의라고도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권석만 (2006).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광수 (1999). *용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광수 (2007). *용서의 심리와 교육프로그램*.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 김기범, 임효진 (2006). 대인관계 용서의 심리적 과정 탐색: 공감과 사과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177-190.
- 김상균, 권석만 (2002). 대학의 전공학과 선택을 위한 다면적 학과적성검사의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 김철환, 이영만, 김민정 (2008). 용서교육 프로그램이 집단따돌림 경험아동의 보복심리와 용서수준에 미치는 영향. *교육방법연구*, 20(3), 109-125.
- 박중효 (2006). Enright 용서심리검사(EFI-K)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20, 247-273.
- 배정은 (2006). *성격 특성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영희 (2007). 청소년의 부모-자녀 갈등경험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 용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1(3), 645-663.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성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77-290.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 59-76.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 C. D.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60-78.
- 조명환,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 48집. 서울: 집문당.
- 조수아 (2008). *용서 신념이 용서와 부정적 정서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eck, A. T., Epstein, N., Brown, G., & Steer, R. A. (1988). An inventory of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93-897.
- Berry, J. W., & Worthington, E. L. (2001).

- Forgivingness, relationship quality, stress while imagining relationship events,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 447-455.
- Brown, R. P. (200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tendency to forgive: Construct validity and links with dep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759-771.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ew-York: McGraw-Hill.
- Compton, W. C. (2005).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Belmont, CA: Thompson Wadsworth.
- Costa, P., & McCrae, R. (1986). Personality stability and its implications for clinical psychology. *Clinical Psychology Review*, 6, 407-423.
- Coyle, D., & Enright, R. D. (1997). Forgiveness intervention with post-abortion 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 1042-1046.
- Darby, B. W., & Schlenker, B. R. (1982). Children's reaction to apolo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742-753.
- Deffenbacher, J. L., Demm, P. M., & Brandon, A. D. (1986). High general anger: Correlates and treatment.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24, 481-489.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Diener, E., Emmons, R., Larsen, R.,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 Lucas, R. (1999).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 Kahnemann, E. Diener, & N. Schwar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 of hedonic psychology* (pp.213-229).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Enright, R. D. (2001). *Forgiveness is a choic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nright, R. D., Santos, M. D., & Al-Mabuk, R. (1989). The adolescent as forgiver. *Journal of Adolescence*, 12, 99-110.
- Fincham, F. D., & Kashdan, T. B. (2004). Facilitating forgiveness: Developing group and community interventions. In P. A., Linley & S. Joseph (Eds.), *Positive psychology in practice* (pp.617-637).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Freedman, S. R., & Enright, R. D. (1996). Forgiveness as an intervention goal with incest survivo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983-992.
- Girard, M., & Mullet, E. (1997). Propensity to forgive in adolescents, young adults, older adults, and elderly peopl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4, 209-220.
- Hargrave, T. D., & Sells, J. N. (1997). The development of a forgiveness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3, 41-62.
- Hazaleus, S. L., & Deffenbacher, J. L. (1986). Irrational beliefs and anger arousa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222-226.
- Hebl, J. H., & Enright, R. D. (1993). Psychotherapy as a psychotherapeutic goal with elderly females. *Psychotherapy*, 30, 658-667.
- Kwon, S. M. (1992). Differences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utomatic thoughts in depression: an

- integrated model of depression*. Ph. D.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in Australia.
- Lawler, K. A., Younger, J. Piferi, R. A., & Jones, W. H. (2000). *A physiological profile of forgivenes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Behavioral Medicine, Nashville, TN.
- McCullough, M. E., Fincham, F. D., & Tsang, J. A. (2003). The grateful disposi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540-557.
- McCullough, M. E., Pargament, K. I., & Thoresen, C. E. (2000).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Y: Guilford Press.
- McCullough, M. E., Rachal, K. C., Sandage, S. J., Worthington, E. L. Jr., Brown, S. W., & Hight, T. L. (1998).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II: Theoretical elabor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586-1603.
- Miller, T. Q., Smith, T. W., Turner, C. W., GuijaM. L., & Hallett, A. J. (1996). Meta-analytic review of research on hostility and physic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19*, 322-348.
- Mullet, E., Neto, F., & Rivere, C. (2005). Personality and its effects on resentment, revenge,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In E. L. Worthington, Jr. (Ed.), *Handbook of forgiveness*. NY: Routledge.
- Pan, H. S., Neidig, P. H., & O'Leary, K. H. (1994). Predicting mild and severe husband-and-wife physical agg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975-981.
- Pargament, K. I., & Rye, M. S. (1998). Forgiveness as a method of religious coping. In E. L. Worthington (Ed.), *Dimensions of forgiveness: psychological research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Templeton Foundation Press.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oseng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sbult, C. E., Verette, J., Whitney, G. A., Slovik, L. F., & Lipkus, I. (1991). Accommodation processes in close relationships: Theory and preliminary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3-78.
- Sandvick, E., Diener, E., & Seidlitz, L. (1993). Subjective well-being: The convergence and stability of self-report and non-self-report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61*, 317-342.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Free Press.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9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D. Janisse (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 NY: Springer Verlag.

- Subkoviak, M. J., Enright, R. D., Wu, C., Gassin, E. A., Freedman, S., Olson, L. M., & Sarinopoulos, I. (1995). Measuring interpersonal forgiveness in late adolescence and middle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ce, 18*, 641-655.
- Suloway, F. (1996). *Born to rebel*. New York: Springer.
- Takaku, S., Weiner, B., & Ohbuchi, K. (2001). A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a apology and perspective-taking on forgiveness.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20*, 144-166.
- Walker, D. F., & Gorsuch, R. L. (2002). Forgiveness within the Big Five personality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 1127-1137.
- Witvliet, C. V., Ludwig, T. E., & Van der Laan, K. L. (2001). Granting forgiveness or harboring grudges: Implications for emotion, physiology, and health. *Psychological Science, 121*, 117-123.
- Worthington, E. L., Sandage, S. J., & Berry, J. W. (2000). Group interventions to promote forgiveness. In M. E. McCullough, K. I. Pargament, & C. E. Thoresen (Eds.),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228-253). New York: Guilford Press.
- 1차원고접수 : 2009. 4. 20.  
수정원고접수 : 2009. 5. 15.  
최종게재결정 : 2009. 5. 29.

##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forgiveness trait scale

**Ji-Young Kim**

**Seok-Man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giveness, which is character strength and virtue, is defined as a positive trait to intentionally renounce a desire for one's revenge and offer a wrongdoer benevolence and generosity. According to a number of empirical studies, forgiveness can reduce and prevent various maladaptive symptoms. Then, would forgiveness go beyond the relief of negative symptoms and contribute to our subjective well-being and happiness?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 of forgiveness as character strength and subjective well-being. For this purpose, study 1 was conducted to develop Forgiveness Trait Scale(FTS), a self-report measure to evaluate forgiveness as character strength. Data from 482 undergraduates proved the single-factor structure and reliability of FTS while validating the scale through the analysis of related psychological traits. In study 2, the positive relations of forgive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were demonstrated. Study 3 confirmed these relations by surveying 2003 undergraduates all over the nation. The relations of forgiveness and demographical and personality variables were examined as well. Lastly, som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re discussed. Th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offered.

*Key words* : forgiveness trait scale, character strength, forgiveness, subjective well-being